

연재

+

초보 애니멀커뮤니케이터들의 대화



최종욱

광주시청 광주우치동물원
야생동물 진료수의사
lovna1@hanmail.net

초보 애니멀커뮤니케이터들의 대화

TV 프로그램에서 요즘 부쩍 '애니멀커뮤니케이터(animal communicator)'란 신종 직업인(?)들이 조금씩 눈길을 끌고 있다. 애니멀커뮤니케이터란 동물이거나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들과의 내면(?)의 교감을 통해 소통을 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그들을 동물심리분석가 또는 동물언어 통역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 인기 동물관련 프로그램에서 '하이디'라는 분이 나와 일종의 자폐증



연재

+

초보 애니멀커뮤니케이터들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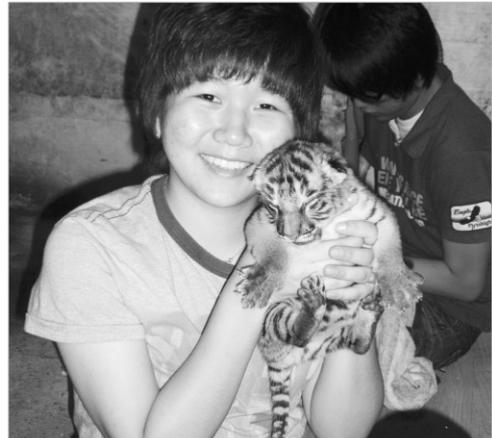


에 걸려있는 개와 고양이 그리고 말과 소통을 하고 그들을 어둔 구석에서 밝음의 세계로 이끄는 걸 감동스럽게 지켜보았다. 우리 우울한 침팬지도 그녀와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려 했지만 동물원 사정상 뜻을 이루지 못해 아쉬웠다.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씨란 분이 나와 냉혈 동물인 도마뱀과 소통을 하고 심지어 사진만 보기도 죽은 개하고 교감을 나누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하이디는 동물들의 원망 없는 정말 순수한 감정들을 읽어내면서 거의 대부분 주인들의 동물에 대한 노력과 정성을 당부했다. 박씨란 분도 동물들을 꽤 많이 아시고 자연과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엔 사랑과 철학이 꽤 넘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솔직히 난 아직 긴가민가한 수준이다. 그런 것이 가능한 거라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동물에 대한 사고방식도 상당부분 바꾸어야 한다. 그래도 혹시 내가 아직 못 가본 정말 그런 세계가 있다면 꼭 한번 들어가 보고 싶기도 하다.

만일 검증된 그런 이들이 정말로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도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반드시 동물병원이나 동물응급구조센터에 직원이든 혹은 촉탁이든 아무튼 꼭 있어야 할 존재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픈 동물이 오면 그들의 입회하에 어딘가 아픈지 먼저 꼭 물어봐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대부분의 오진은 바로 이 동물 환자와의 소통부재에서 오기 때문이다. 사람은 머리가 아프면 머리 한쪽이 깨지는 듯 아프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럼 의사는 머리와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진단의 범위를 축소하여 진행해 나갈 수 있다. 동물에서, 같은 경우라면 단지 축주의 이야기만 듣게 된다. 녀석이 요즘 통 밥을 안 먹고 한쪽 구석에만 누워 있어요. 이런 말만 듣고 수의사는 머리에 포인트를 맞추기는 무척 어렵다. 단지 식욕부진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 지니 머리 쪽보단 소화기계엔 더 민감해 질 수밖에 없다. 동물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수의사는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왜 자꾸 배만 만지고 쳐다보는 거야 할 것이고 죽주는 왜 며칠을 치료해도 차도가 없냐고 따지게 될 것이다. 그래도 애완동물들 경우라면 내왕도 자주하고 24시간 주인이 관찰 하에 있으니 치료방향을 가변적으로 달리하여 타겟에 근접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가축이나 야생동물들의 경우는 아픈 동물이 쓰러지지 않는 한 아프다는 것조차 발견하기가 무척 어렵다. 애완동물이라면 아프면 아프다고 투정이라도 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적대감내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축이나 야생동물들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언어로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웬만치 아프지 않는 한 변화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특히 동물원이나 수족관 같은 곳에서는 다른 어느 곳보다 진정한 애니멀커뮤니케이터가 있다면 절실히 필요한 곳이 될 것이다.

이런 능력을 아주 축소시켜 생각하면 동물을 사랑하고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애니멀커뮤니케이터라고 할 수 있다. 돌고래나 코끼리, 원숭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조련사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늘 놀라움에 사로잡힌다. 비록 훈련의 힘이라지만 동물은 물리적으로만 안 되는 심리적이거나 감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범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까지 나왔지 않은가! 동물들이 칭찬을 알아들을 정도로 그들 간에 작은 범주



연재

+

초보 애니멀커뮤니케이터들의 대화

의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개를 끔찍 못하게 하는 개장사들의 능력 역시 나쁜 쪽이긴 하지만 분명 애니멀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임을 부정할 수 없다. 동네 개들은 이상하게 그들의 첫인상만 보고도 대번에 꼬리를 사리고 피하려 든다. 그렇다고 개장사들이 그 개들에게 무슨 말을 했거나 행동을 한 것도 아니다. 개장사들도 그들 나름대로 애니멀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견습과정이 있는지 참 궁금하다.

우리 동물원에도 자칭 애니멀커뮤니케이터란 이들이 가끔 나온다. 그들은 대개 들어 온지 1년 미만의 신참 직원들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배경에는 사실 동물들의 길들이기가 있었다. 침팬지는 사람들이 자기가 받아먹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몇 번 경험으로 일찍 감지 알아챘다.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거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우선 철창 사이로 손부터 내민다. 동물을 모르는 누구라도 그것이 당연히 뭘 달라는 의미인지는 다 안다. 그걸 처음 본 사람들은 신기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무엇이든 건네주고 싶어 한다. 또한 ‘판치’라고 정해진 이름이 있어 그 이름을 아는 이가 부르면 의례히 무얼 준다는 신호로 알고 어슬렁거리며 나온다. 신참들은 몇 번 그런 걸 경험하면 바로 고무되어 버린다. 마치 자기가 침팬지를 지배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든다. 그리고 지인들이 찾아오면 침팬지를 불러내고, 손을 내밀게 하고, 먹을 걸 받아먹게 하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연출한다. 지인들은 그때 살짝 놀란다. 그런데 다음으로 침팬지뿐만 아니라 아기 호랑이들도 “아흥”하고 부르면 다가와 콧등으로 손을 차례대로 부빈다. 코끼리가 당근을 들고 가서 ‘아!’ 하고 외치면 갑자기 입을 짝 벌린다. 기린이 아카시아 잎을 들고 ‘린’ 하고 부르면 다가와 울타리 너머로 긴 고개를 숙 내민다. 지인들은 드디어 완전히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버린다. 그리고 “우와! 부르면 동물들이 나오네요! 너무 신기해요. 정말 동물들과 대화가 통하시나 봐요!”하며 탄복해 마지않는다. 그런 이들을 자주 곁에서 지켜보는 난 그들이 한편으로 웃기면서도 나름 사랑스럽기도 하다. 그리고 난 또 다른 동물들에게 새로운 대화법을 시도해 본다. fin~

